

화순 국제 백신포럼 세계석학들 한자리에

오늘까지... 700여명 참석 백신산업 발전 방향 머리 맞대
郡, 셸리드·아이진·보령바이오파마 3개 기업과 투자협약

노령층에 효과적인 백신, 차세대 면역 증강제, 세포의 소포체를 표적으로 하는 DNA 백신,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균을 이용해 암세포만을 골라 죽이는 플라젤린B를 활용한 면역치료법...

세계 석학들이 화순에서 질병퇴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새롭게 출현하는 감염병 퇴치 방법, 바이오테라피즘 대비 한 탄저 백신 개발 등이 주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백신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눈에 가능케 할 수 있는 '2017 화순 국제백신포럼'을 21일과 22일 이틀간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질병 퇴치와 새로운 백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낸시 셸리반(Nancy Sullivan)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 연구소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외 백신 석학 9명이 강연한다. 의료계, 학계, 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백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는 대한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와 공동 개최해 화순국제백신포럼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준행(전남대 의대 교수) 화순국제백신포럼추진위원장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백신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함께 포럼에서 다룰 주제를 설명했다.

제1세션에서는 '백신 그리고 사회와 산업'이란 주제로, 지역미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과 지희정(주녹십자 전

무, 쉬앤이왕(Xuan yi Wang) 중국 국가 치료백신공학연구소 연구책임자가 연사로 나서 한국과 중국의 백신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점검한다. 특히 지 전무는 "한국은 예방접종의 확대·강화로 소아마비가 종식되고 B형 간염과 H1N1 인플루엔자 예방이 가능해졌다"며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백신 개발 기술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노령층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 개발도 이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세션에서는 '백신연구의 최근 연구 동향'이 발표된다. 낸시 셸리반 위원장, 세바스찬 울버트(Sebastian Ulbert) 독일 프라운호퍼 IZI연구소 면역과장이 연사로 나서 인플루엔자·에볼라바이러스 등을 퇴치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

제3세션에서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 개발 방법'이 제시된다. 리슈마니아 감염증 백신을 개발한 스티븐 리드(Steven Reed) 미국 감염병연구소장, 켄 이시이(Ken Ishii) 일본 국립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 백신연구센터장, 이시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선다.

둘째날인 22일에는 제11차 대한백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임상평가지침과 매년 끊이지 않는 수족구병 예방접종,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국내 백신제약회사와 투자협약도 체결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자경경부암 면역항



21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7 화순 국제백신포럼'. 국내 백신산업의 미래를 살피며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주)셸리드, (주)아이진, 보령바이오파마 등 국내 백신 제약사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화순백신특구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암제 등을 생산하는 (주)셸리드, 결핵백신 등을 생산하는 아이진(주), 백신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보령바이오파마 등 3개 기업과 백신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백신원액 제조 등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준행 포럼추진 위원장은 "화순국제백

신포럼은 국내외 백신 연구자의 교류협력은 물론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라며 "화순 백신산업 인프라 확충에 정부와 관계기관, 민간 기업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도록 화순국제백신포럼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양 여성농업인단체 농업발전 토론회

담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업인단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업발전 토론회'를 열고 담양 농정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회사의 설립, 위생농업 실현 등 농정현안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담양군은 농업회사 설립, 농업여건 개선, 담양 농산물 판매 판로개척 등의 견수령 결과를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발전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농민단체, 원예, 축산,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여성농업인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뜻 깊은 자리"라며 "농업인들과 소통, 희망찬 담양 농업·농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담양군 추석 앞두고 이웃돕기 후원 붐몰

성금·한돈·백미 기탁 줄이어

추석을 앞두고 담양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사)대한한돈협회 담양군지회(회장 이종구)는 한돈 500kg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전달했다. 메타펜션(대표 정정길)의 경우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고 파망하우스(대

표 강준구)는 룰게익 100박스를 내놓았다. 또 담양읍 전이규씨는 100만원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탁한 성금·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해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장성군은 최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사업과 함께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진행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노란 농약보관함으로 생명 지키기

2개 마을 96세대에 설치

장성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농약안전보관함'에도 적용됐다.

장성군은 어르신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황룡면 신호2리를 비롯, 2개 마을 96세대에 설치했다.

농약 사용이 잦은 시골에선 농약을 마루 밑이나 토방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글씨를 모르는 나이든 어르신들의 경우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사례까지 있는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앞서 장성군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

단 공모를 거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유치했다.

보관함 색깔은 마지막 순간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짐게 하는 마음을 담아 희망의 색깔인 노란색인데다, 장성을 상징하는 색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또 마을 이장, 부녀회장을 '생명 지킴이'로 위촉하고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도 가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적벽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음악회·걷기대회... 화순 적벽문화축제

30일~내달 1일 이틀간

화순 적벽(赤壁)의 아름다움과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화순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제32회 적벽문화축제'를 화순 적벽 및 이서커뮤니티센터 일대에서 연다. 이번 축제는 '명승 제112호 지정 기념, 적벽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을 주제로 적벽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30일 열리는 적벽힐링건강걷기대회는 적벽의 신비로움과 주변 풍광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건강도 다지는 행사로, 오전 9시 적벽 입구 주차장을 출발, 적벽 방향정

까지 5km 구간에서 열린다.

적벽 작은 음악회와 화순적벽 풍류놀이 등은 이서커뮤니티센터 주변에서 10월 1일 펼쳐진다. 적벽문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적벽 버스투어가 잠정 중단되고 개인 차량도 통제된다. 화순군은 "축제 기간 적벽관광 희망자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만 제한적으로 운행된다"고 설명했다.

화순 적벽은 화순군 이서면 청량리·장학리에 걸쳐 있는 동북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붉은 색 수직 절벽이다. 웅성산과 동북호 등 인근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곳으로 노루목적벽, 창랑적벽, 물염적벽 등이 절경으로 유명하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